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소방가족 여러분!

세월호 사고 수습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광주의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소방공무원 다섯 분의 명복을 빕니다.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구급 구난의 최일선에서 함께 일해 왔던 다섯분 동지들을 잃은 강원 소방가족 여러분의 비통한 심정과 충격을 어찌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150만 광주광역시민의 뜻을 모아 편지로나마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헐기 조정간을 놓지 않고 자신의 몸을 산화시키면서까지 대형 참사를 막았던 소방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광주시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값진 목숨을 바쳐 광주시민의 안전을 을곧이 지켜낸 위대한 희생정신은 한국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던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분 소방영웅들의 값진 희생은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숭고한 결단으로서 대한민국 공직자의 귀감으로 역사속에서 찬란히 빛날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강원 소방가족 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 하시고 자랑스런 소방영웅들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여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더욱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강원 소방가족 여러분의 전승을 기원드립니다.

2014년 7월 28일

광주광역시장

윤장현